

2023. 04. 12.(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4월 1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2133-0200
도서관정책과장	김지안	2133-0220
담 당 자	이효성	2133-0210
	김수진	2133-0227
관련 누리집 (서울도서관)	https://lib.seoul.go.kr/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6쪽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서울시 엄마 북돋움 책상자가 찾아갑니다

- 예비부모(임산부)를 위한 엄마 북돋움 책상자 배송을 '23년 3월부터 시작
- 4월7일까지 14,982명이 신청하고, 신청자 10,196명에게 책상자 발송
- 서울시 육아정책정보 안내자료를 통해 이용가능한 육아정책 서비스도 제공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도서관의 부모 및 영유아 프로그램 360개, 1,600회 운영 지원

- 서울시는 3월부터 예비부모(임산부)를 위한 육아정보를 담은 엄마 북(Book)돋움 책상자 배송을 시작했다.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돋움 사업은 기존에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방문신청·방문수령방식에서 예비부모(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택배수령방식으로 변경하고 올해 첫 책상자를 발송했다.
- 서울시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사업 신청 누리집에서 2023년 1월 2일부터 엄마 북돋움 책상자 배송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4월 7일 현재까지 2023년 예상 신청인원인 40,000명의 36.9%에 달하는 14,982명이 신청했다.

- 1~2월 신청자 10,196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책상자 배송이 시작했으며, 3월 신청자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된다.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돋움 책상자〉

- 엄마 북(Book)돋움 책상자에는 육아정보를 담은 엄마아빠 책 1권, 우리아이 첫 책 2권, 북돋움 에코백, 서울시 육아정책을 담은 안내자료가 담긴다.
- 엄마아빠 책은 임신·육아 전문가들의 추천과 5,134명이 참여한 시민 엠보팅을 거쳐 예비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육아 정보서 〈0~5세 말걸기 육아의 힘(김수연, 위즈덤하우스)〉, 〈부모가 되어가는 중입니다(김훈태, 유유)〉 등 총 10종을 선정했다. 우리아이 첫 책은 독서분야 전문가와 도서관 사서가 참여하여 선정한 북스타트 1단계 도서를 제공한다.
- 서울시 육아정책정보 안내자료는 더 읽어보면 좋은 임신·출산·육아 도서정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수

유정보알리미, 유치원 알리미 등 육아에 도움이 되는 육아정책정보, 자치구별 북스타트 2·3단계 추진현황, 엄마 북돋움 프로그램 운영 정보 등이 담겨있다.

- 2022년 7월부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은 예비부모(임산부)라면 교통비 지원 누리집(<https://www.seoulmomcare.com/>)에서 누구나 엄마 북(Book)돋움 책상자를 신청할 수 있다.
 - 2023년 1월 1일 이전 교통비 신청자는 누리집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1월 2일 이후 교통비 신청자는 교통비 신청 시 엄마 북돋움 책상자를 동시 신청할 수 있다.
 - 서울도서관은 엄마 북돋움 책상자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컷튼을 제작하여 누구나 쉽게 책상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엄마 북돋움 책상자를 받은 예비부모의 반응도 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육아 관련 서적도 1부 같이 보내줘서 엄청 큰 도움이 되는 중”, “아가들과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잘 적혀있어서 이해하기 쉬웠어요”라는 엄마아빠책에 대한 감상 외에도 “책과 가깝게 지내며 자랄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노력하는구나!”, “태어날 아가와 예비부모를 위해 시에서 함께 신경 써 주고 있는 것 같다” 등의 사업에 대한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 “직접 받아와야 했던 첫째 때와 달리 택배로 오니 너무 편했다”는 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반응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책상자 신청을 놓친 예비부모가 없도록 책상자 홍보 이벤트 등도 5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 서울도서관은 2023년부터 엄마 북돋움 사업의 일환으로 자치구 도서관에 영유아와 양육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과 연계하여 영유아 가정이 좀 더 편하고 즐겁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양육자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육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학습·놀이 프로그램에 영유아가 참여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엄마 북돋움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한다.
- 서울시 25개 자치구 도서관은 예비 부모를 포함하여 부모와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360개 개설하고 1,600회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평일에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주말 프로그램도 100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 5월부터 11월까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그림책 읽기, 오감 자극 책놀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부모와 아이 상호 간의 애착을 형성하고 소통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 또한, 엄마 북돋움 책상자 도서를 활용하여 25개 자치구 도서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우리아이 첫 책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생애초기 독서습관을 형성하는 ‘우리아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엄마아빠책을 이용해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를 응원하는 ‘엄마아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우리아이 프로그램’은 아기의 인생 첫출발을 책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아기들이 어린 시절부터 책과 도서관에 대해 즐거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여 평생의 독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엄마아빠 프로그램’은 육아로 지친 엄마, 아빠와 출산을 앞두고 양육 정보가 필요한 예비 엄마, 아빠를 응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육아

강의, 부모 힐링 프로그램 등에 관심 있는 양육자들은 가까운 구립 도서관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Book)돋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도서관 누리집(<https://lib.seoul.go.kr/rwww/html/ko/bookUp.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시 엄마 북(book)돋움 사업은 아이들의 독서습관 형성을 도울 뿐만 아니라 실제 출산을 준비하는 동안 육아방법을 고민하는 예비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육아준비에 대한 시간적, 심적 부담을 덜어주고, 엄마아빠아이가 행복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라고 사업취지를 밝혔다.

붙임 1.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book)돋움 신청 안내컷툰 1부. 끝.

붙임 1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돋움 신청 안내 킷톤

